

수 학 보 고 서

소 속	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	
파 견 국 가	미국	
파 견 대 학	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	
파 견 기 간	시작	2025년1월
	종료	2025년5월

준 비 과 정	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
	해외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가지고 싶었고, 교환학생을 꿈꿔왔던 터라 방학 때 토익 점수를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
	파견교 지원 과정
	수학 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준비 했고,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. 면접 준비시 영어로도 준비하였습니다.
	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
파 견 학 교	합격 후 학교측으로부터 DS-2019를 받고 비자를 만들기 위해 DS-160발급, SEVIS FEE 납부를 했습니다. 그 후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면접을 본 후 약 일주일 뒤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. 항공권은 11월쯤 빨리 예약했습니다. 준비물은 상비약, 피부에 맞는 화장품, 전자기기 충전기등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챙겼습니다. 저는 깜빡하고 어댑터를 챙겨가지 못했는데 꼭 챙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
	공항 픽업 & 오리엔테이션
	학교로 가기 1-2달쯤 공항 픽업을 신청하라고 메일이 옵니다. 비행편명과 날짜, 도착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. 오리엔테이션은 개강하고 난 지 일주일 후에 J-1 비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진행했습니다.
	수업 & 학교 활동
	수업은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본인이 들을 수 있는 전공과목뿐만이 아니라 요가, 웨이트트레이닝, 발레, 도공예등 다양한 교양과목도 진행하니 원하는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전공과목의 경우 선이수과목이 필요한 과목들

	<p>이 있는데 명지대에서 같거나 비슷한 선이수 과목을 들었을 경우 면제 품을 작성하면 됩니다.</p> <p>학교 활동으로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이벤트가 열립니다. 전공마다 해당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벤트나, 친목도모 활동, 졸업생과의 만남, 취업 설명회 등등 아주 다양하니 시간이 될 때 참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.</p> <p>한국학생회에서도 김밥만들기, 불닭볶음면 챌린지 등등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</p>
	<p>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</p> <p>저는 Quad라는 곳에 살았습니다. 이름처럼 North, West, South, East로 이루어져 있으며 2명이서 같은방을 쓰고 방안에 세면대가 있습니다. 방 5개 끼리 화장실 하나를 같이 씁니다. 1층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1층에서 다양한 기숙사 행사도 열립니다. 층별, 구역별로 라운지가 있는데 모여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.</p> <p>학식은 Ayers라는 곳에 가서 먹는데, nigh center라는 곳에 가면 식당이 여러 개 더 있습니다. 작은 마트들도 있고 은행, 국제학생 오피스도 있습니다.</p>
주 변 환 경	<p>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</p> <p>오클라호마에서 가장 도심인 OKC 에 나가려면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. 보통 우버나 리프트를 통해 다녀왔습니다.</p> <p>월마트, 타겟, 로스등 생필품들을 살 수 있는 마트들은 걸어서 15-20분 정도 걸립니다.</p> <p>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</p> <p>Edmond 라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치안이 좋습니다. 노숙자도 없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주변에 놀거리는 많이 없고 도심으로 나가야 합니다.</p>
비 용	<p>등록금 (해당 학생만)</p> <p>명지대에만 등록금을 냈습니다</p> <p>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</p> <p>제가 지냈던 Quad의 경우 한학기당 3350달러 이지만, Quad 나 West hall 을 선택할 경우 기숙사 비용에서 35%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</p> <p>저는 학교 보험이 아니라 사설 유학생 보험을 들었습니다.</p> <p>교재비의 경우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E book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.</p> <p>생활비</p> <p>도시에 자주 나가지 않는이상 따로 크게 들거나 하지는 않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</p>

	씩 월마트에서 식자재를 사는 것이 가장 주소비였습니다
	한달 평균 지출 비용
	저는 월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사고, 외식을 하거나 옷을 사는데에 주로 썼습니다. 적게쓸때는 한달에 10만원정도 소비였고 많이 썼을때는 60-70정도 쓰기도 했습니다.
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	
오랫동안 꿈꿔왔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.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난생 처음 해보는 새로운것도 시도해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한학기는 너무 짧게 느껴졌고 학기를 연장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고 저에게 있어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인생의 큰 반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.	
사진 첨부 (최소 5장)	
 	



